

다문화가정 청소년자녀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인력 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f the Potential for Adolescen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Be Trained as Competent Personnel in Charge of ODA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박미석\*\*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김경아\*\*\*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Park, Mee Sok

School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im, Kyoung A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for multi-cultural youths, given their innate bilingual and dual culture, to be trained as the competent ODA professionals.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information, we organized two different kinds of FGI in 2015. The first FGI was conducted with a group of 10 expert participants from August 17 to

\* 본 논문은 여성가족부(2015)에 제출한 ‘다문화가족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주저자: 박미석(msp@sm.ac.kr)

\*\*\* 교신저자: 김경아(kakim@sm.ac.kr)

September 25. The second FGI was conducted four times, from October 5 to October 23, with 13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rom Russia, Mongolia, Vietnam, India, Indonesia, Japan, and China.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items were passed through a formal review process of th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Furthermore, with the participants' pre-consent to recording, all recorded data were categorized through the transcription proc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ile the potential for nourishing bilingual and dual cultural capabilities are high for the adolescen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expert group also emphasized the negative aspects of these capabilities being suppressed due to the relatively oppressed family environment. The expert group therefore suggests the following: building parent awareness of ODA human resources, developing an educational career transition roadmap, and providing institutional incentives for ODA. In addition, to some extent,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detect some positive self-esteem among the adolescen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a result of the bilingual and dual cultural competencies required to be ODA personnel. In sum, the research provides insight into the need for national social support for the adolescen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o that their strengths are not extinguished, in order that they might grow up as competent ODA personnel.

Key Words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 청소년자녀(adolescent children)

## I. 서론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여국(供與國)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지니게 되었다(KTV국민방송, 2015). 1945년 이후 1950년대까지 최빈국에 처해 있었던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이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기저에는 경제성장을 지원해 준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원조가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고 한국의 특화된 면을 연계하는 'Win-Win형 ODA' 추진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최근 종결되고 2016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새롭게 추진되면

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ODA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과 현장경험 등을 갖춘 인력풀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는 양질의 역량을 갖춘 ODA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권율, 2011).

가정학 측면에서 이러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 동안 꾸준히 연구가 축적되어 온 다문화가정과의 연계선 상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 혼인율이 24,837건(통계청, 2015)으로 전체 혼인율의 8.0%를 기록하는 등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의 자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만 18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는 2006년 2만 5천여명에서 2015년 20

만 8천여명으로 8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결혼만혼화와 저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이들이 학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중단율은 1.01%로 전체 청소년 0.83%보다 높은 수준이며,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5명 중 1명은 학업이나 취업·직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 2016).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으며 사회적 약자라는 편견과 문제중심적 입장에서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이 처해있는 생득적(生得的) 환경은 국제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이 지닌 약점을 강점화하기 위한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즉 이들은 수원국에 대한 지식과 의사소통 및 현지 문화적응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높으므로 미래 ODA 인재로의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개인적 성공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준비된 ODA 인력으로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다문화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이 미래 ODA 차세대 인재로서의 성장가능성과 양성 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문가가 인지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미래 ODA 인재 양성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하는 미래 ODA 인재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한 국가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증여(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 등의 무상원조)나 양허성 차관(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이나 물자에 대한 채무 부여)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의 주요 동기는 주로 정치·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 또한 중요한 동기로 인식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6). ODA는 1945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한 후,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들을 위한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공여국들은 원조를 통한 이념경쟁에서 벗어나 개발과 빈곤문제에 함께 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MDGs를 거쳐 현재 SDGs가 수립되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DGs는 2016년~2030년까지 진행될 새로운 국제사회의 목표로서 빈곤종식, 양질의 교육보장, 성평등 달성, 물과 위생시설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총 17개 목표 아래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Global Compact Network Korea, 2016).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1963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삼각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ODA 활동을 시작하

이래,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물자와 자본을 지원함과 동시에 해외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1991년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설치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현 정부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며 교통, 교육, 공공행정, 수자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2015).

그러나 실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 부족, 사업 분절화 등 국제수준에 비추어 양적·질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김철희, 2011), 특히 ODA 인력수급에 대한 미확보가 가장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ODA 전문인력이란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역량과 기술·현장경험 등의 이론과 실재를 갖춘 인력으로서, 분야별 전문성·현장경험·개발원조에 대한 지식·의사소통(영어 및 현지어)과 프로젝트 순환 체계의 통합관리 및 문화적응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된다(장현식, 2008). 이처럼 ODA 인력은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전문가로 성장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경로(career path)와 체계적 육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권윤, 2011)에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임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다양한 요구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ODA 선진화를 위하여 개도국 국가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공조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바로 태생적으로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환경이 체화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ODA 전문인력으로 양성화하는 것

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진로설정의 동기를 부여해 주어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수원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이 넓은 만큼 ODA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곧 바로 ODA 사업에 전문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다만 미래를 위한 과정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는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국제개발협력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차세대 ODA 전문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점차 높여가야 할 것이다.

## 2. 다문화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있으며 이들의 남다른 재능을 바탕으로 한 인재 양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KBS 뉴스, 2014). 그러나 정작 다문화청소년들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실상들이 보고되고 있는 바, 다문화청소년의 자살생각율은 25.2%로 사회적 경각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박형수·유진호·박부연, 2013). 실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공통된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다(박미숙·이미정, 2014; 윤경식·장일식, 2015). 즉 양국의 가치관과 선호행동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느끼는 문화적 갈등, 언어능력 부족에 따른 소통과 학업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친구들과의 공감대 부족이 더욱 중요한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부정적 경험은 향후 한국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이탈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 출신 부모의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권에 속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난 사실은 주시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 사료된다(여성가족부, 2013).

2015년 정부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영역에서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하였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부처별 공조체제 속에서 한글교육 같은 방문서비스, 외국인청소년 문화체험캠프, 다문화가정 어울마당, 찾아가는 우리예절 체험교실, 사이버마음공부방, 다문화청년캠프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을 위한 국가 간 교류, 기관 및 단체 국제 교류 시 이주배경 청소년 인력을 활용한 외부 인사 영접 및 통역,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실시 등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한글, 모국어, 컴퓨터, 다문화이해, 지역별 자조집단, 문화행사, 장학사업 등이 시행(다누리 홈페이지)되었으며, 유네스코 산하 센터에서는 세계와 친구하기, 아시아 유스캠프, 국제교류 박람회, 포커스인 컬처 등의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정하성·유진이·이장현, 2007). 한편 효율적인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비백인 출산율이 백인 출산율을 앞지르고 이민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사회·경제적 약자로 보고 거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문화중개자(cultural broker)가 되어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는 등의 자존감 형성 프로그램, 다문화적 인간으로서의 자기발견, 단짝 친구 맺기 프로그램,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뉴커머 프로그램(newcomer program)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독

일의 경우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또는 학업 중도 탈락률 등의 문제가 높아지면서 이주민가정 자녀지원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학령기 이전부터 직업으로의 이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언어와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독일어 교육 뿐 아니라 모국어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 외, 직업교육인 미래준비(Auf KURS in die Zukunft), 다문화이해 교육인 다문화학생클럽(Inter kulturelle Schülerklub)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다문화공생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중 동경다문화공생센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제도권 밖의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유진이·김혜정, 2009; 전경숙·정기선·이지혜, 2007).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차세대 리더란 점을 인식하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향후 성공적 자립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 핵심 구성원으로 투입되어,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의 아젠다(agenda)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문가와 다문화청소년의 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전문가 집단은 <표 1>과 같이 ODA와 국제협력 분야 및 다문화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총 10

〈표 1〉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소속	정부 산하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	국제개발협력 전문교육기관	국제기구 /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	청소년 및 국제개발 협력기관 / 국제교류 및 인적 자원육성 전문기관	정부 산하 투자기관
참여자	A, B	C, D	E, F	G, H	I, J

〈표 2〉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일반적 특성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학년	부출신국	모출신국	부직업	모직업	부모결혼상태	출생지	한국거주기간	가능언어	비고
1차	A	남	만 14세	중2	인도 네시아	한국	사무직	전업주부	혼인 유지	인도 네시아	약 13년	한국어, 영어	
	B	남	만 15세	중2	한국	러시아	정비사	전업주부	혼인 유지	한국	약 15년	한국어, 영어, 일본어	
	C	남	만 16세	중3	한국	중국	자영업자	사무직	혼인 유지	한국	약 16년	한국어, 영어	
2차	D	여	만 15세	-	한국	중국	무직	서비스직	별거	중국	약 10개월	한국어, 중국어	중도입국
	E	여	만 17세	-	한국	베트남	회사원	사무직	재혼	베트남	약 3개월	한국어, 베트남어	중도입국 생부: 베트남 출신
	F	남	만 18세	-	한국	중국	사업	생산직	혼인 유지	중국	약 3년	한국어, 중국어	중도입국
3차	G	여	만 14세	중2	한국	몽골	사업	전업주부	이혼	몽골	약 2년	한국어, 몽골어	중도입국
	H	여	만 14세	중3	한국	몽골	단순 노무직	전업주부	혼인 유지	몽골	약 3년	한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중도입국
	I	여	만 15세	중3	한국	몽골	수산 유통직	판매직	재혼	몽골	약 12년	한국어, 영어, 몽골어, 일본어, 중국어	중도입국 생부: 몽골 출신
	J	여	만 17세	고1	한국	몽골	생산직	통번역사	재혼	몽골	약 10년	한국어, 영어, 몽골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도입국 생부: 몽골 출신
4차	K	여	만 19세	대2	인도	한국	NGO 대표	전문직	이혼	한국	약 19년	한국어, 영어	
	L	여	만 20세	대2	한국	일본	자영업자	전업주부	혼인 유지	일본	약 15년	한국어, 영어, 일본어	
	M	여	만 24세	대학원	한국	일본	전문직	전업주부	혼인 유지	한국	약 24년	한국어, 영어, 일어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다문화청소년 집단은 <표 2>와 같이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통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신인

경우로 한정하여 만 12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과정

FGI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주제와 참여자를 선정하여 상호 인식과 경험을 교류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층적·집약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leiber, 2004). 부연하면 관련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지지됨으로써 하나의 이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다(김미옥, 2007).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연구자들의 역할 분담 및 합의를 통해 주요 질문을 결정하고 다음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은 상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인터뷰 직후 디브리핑(debriefing) 과정을 통해 특이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 녹음 내용을 신속히 전사(transcripts)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Kruger, 1998). 본 연구의 그룹 크기는 2~5명으로 다소 작은 미니 그룹 인터뷰(mini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주제와 내용이 아직 생소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분야이기에 보다 심도 깊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예민한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함이었다. 질문문항은 연구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비지시적,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활용(Padgett, 1998)한 적극적 면접법(Holstein & Gubrium, 1995)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구상한 문제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면접이 이루어지기 전 질문지를 미리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여 답변을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용 질문지 또한 사전에 자문을 의뢰하여 정보제공자인 다문화청소년의 인지수준에 부적합한 문항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FGI 진행 형식은 연구자가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주요 질문을 먼저 제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생동감 있고 심층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고 자료수집이 포화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실시하였

다. 모든 회기의 평균 소요시간은 전문가 집단과 다문화청소년 집단 각각 120분~150분 내외로 나타났다. 끝으로 FGI 실시는 전문가 집단의 경우 2015년 8월 17일~9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회의실 및 참여자 소속 기관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10월 5일~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교내 상담실과 참여자의 학교 및 다문화관련 기관 등 연구참여자들이 심리적, 거리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 3. 자료의 윤리적 고려 및 타당성

자료 수집에 앞서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인터뷰 전 개인적 특성에 대한 비밀보장·연구목적과 연구과정·자발적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및 녹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consent form)에 서명을 받고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에는 언어적·비언어적 자료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사를 맡은 석사과정생이 동행하여 녹음과 동시에 현장상황을 추가 기록하였다. 이후 녹음된 면담자료는 정확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곧 바로 텍스트 형태로 전사되었다.

자료 분석은 인터뷰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면서 면접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중심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Braun & Clarke, 2006). 먼저 연구자 각자 인터뷰 당시 작성한 인터뷰 스케치, 녹취 자료 및 전사자료에 대한 반복 청취와 정독을 통해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어들을 도출하고 의미 있는 구절과 문장에 표시하면서 주요 주제와 개념을 추출함과 동시에 명명화 작업을 하였다. 다음 1차로 분석한 의미 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거쳐 각각 하위범주의 명명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하위범주 도출을 위하여, 연구진 외 관련 전공분야 교수 2인과 박사 2인이 비교와 대조를 통한 자료의 유형화 및 새로운 범주의 생성 혹은 각 범주들 간의 상호 배타성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이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추출, 조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 오류를 최소화(Linclon & Guba, 1981)하기 위한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의 의미이다. 더불어 산출된 연구결과 또한 추가적으로 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상과 같이 의미 있는 단위로 자료를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유사한 개념끼리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감환(reduction)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실시한 FGI 자료는 전문가 집단과 다문화청소년 집단 모두 각각 다음의 세 개 주제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 1. 전문가 집단

###### 1) ODA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 (1) 언어적 역량: “현지어 능력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봅니다”

다문화청소년이 향후 ODA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언어적 역량이 전제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즉 한국어 뿐 아니라 현지어에 대한 말하기 수준 이상의 문서작성에 필요한 문해력(文解力) 수준을 갖춘 이중언어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B: 우선적으로 현지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경우 영어로 소통하기보다는 현지어가 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어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봅니다.

H: 실제로 ODA 사업이란 건 국어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직무역량평가를 한다면 저는 문해력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 (2) 문화적 역량: “현지사정에 밝지 못하면... 지식가능성이 힘듭니다”

유능한 ODA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문화(異文化)에 대해 거리감 없이 적응할 수 있는 현지점점의 친숙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원활한 사업의 시작일 뿐 아니라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 됨을 알 수 있다.

A: ODA 사업의 성공요소는 현장중심에 있습니다. 언어 다음으로 현지 실정에 대한 현실감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 할 수 있지요.

B: 실제 KOICA에서 선발한 신입사원의 경우 현지사정에 대한 취약성이 있어요. 현지사정에 밝지 못하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시작한다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이 힘듭니다. 만약에 입사를 한다면 언어나 생활적인 면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유리한 점이 있겠지요.

- (3) 전문적 역량: “IT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현지인보다 외국인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거든요”



ODA 인력은 곧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특정 분야에 대한 자기전문역량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즉 단순한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관련 분야의 전문 용어와 정보 습득 및 기술 등이 병행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A: 우리나라를 근거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을 당장 ODA 사업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이 ODA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마이스터고 위주로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B: 언어나 생활에 대한 부분 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면 더 좋지요. 말하자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대체로 ODA사업 수혜국들은 IT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현지인보다 외국인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거든요.
- C: 저희는 솔직히 요즘에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능력 보다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웃음)... 자기 전공을 파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요.

2) ODA 관련 프로그램 현황 및 방향 모색

- (1)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의 현주소: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면 진입장벽 자체가 커서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ODA 전담 기관이나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관련 국제화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다문화청소년의 접근은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ODA 인재 양성에 관심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한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우대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 A: 굳이 다문화가족과 연계된 사업의 예를 찾아본다면, KOICA가 신문사와 연계하여 진행한 사업 중 ‘월드 프렌즈’라고 베트남 출신의 부모를 둔 자녀가 단발적 이벤트성으로 1주일간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파견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ODA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제도적으로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면 진입장벽 자체가 커서 어려울 수 있어요.
- E: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많이 있겠지만, 국제협력사업으로는 그렇게는 사실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나 포럼 같은 프로그램 선발할 때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비중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가 제일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청소년들을 향후에 ODA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키운다면 정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 D: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확보해주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냥 능력만 가지고 뽑겠다고 하면 어렵죠.

- (2)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국제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다문화가족 출신의 아이들만 가지고 간판을 걸고 하는 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다문화청소년만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거시적 맥락 안에서 이끌어어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유전적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사고나 문화적 측면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다고 출발하는 것은 편협한 발상일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세계시민교육의 틀 안에서 수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F: ODA 사업에 다문화가족 출신의 아이들만 가지고 간판을 걸고 하는 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이걸 현장에서 돌리거나 액션을 취할 때에는 글로벌 인재라는 차원에서 간판을 걸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특별한 그룹이 아닌 글로벌 인재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엄마·아빠가 베트남 출신이라고 해서 베트남 인재로 키워야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인 거고, 그 중에 어떤 가족은 모국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베트남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미 인식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베트남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ODA 사업도 분야가 있잖아요. 통역에 대한 것이라면 통역에 대한 스킬이 있어야할 것 같고 아이들마다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을 all round play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I: 그들(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자체는 역차별인 거 같아요.
- D: 세계시민의식(교육)이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해잖아요?... 내용 자체도 빈곤이나 인권, 또 상호연계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 해줄 게 있다는 걸 깨달아서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고 해요.
- E: 청소년 프로그램을 한다면 세계시민 캠프가 될 수 있겠죠.

### 3) 다문화청소년의 ODA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 (1)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인 아버지들이 엄마 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는 문제가 되게 많더라구요”

다문화청소년들이 ODA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먼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이 글로벌 역량을 지닐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때 자녀들의 이중언어 역량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J: 다문화 가족 부모님들 보면, 특히 한국인 아버지가 엄마 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는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역 인으로 갈 수 있고... 사실 사회에서 보긴 좋은 자원이잖아요. 이게 자원이란 걸 인식하면 어릴 때부터 노출을 시킬 텐데... 사실 다문화 아이들도 이중언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기대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깐 그 인식문제 부분에서 그 부모들한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 자녀가 나중에 무역인으로서 이 아이가 적어도 두 개 국어를 하고 있고 영어까지 한다... 그런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는 싶어요.
- I: 노출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혼란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언어도 들리네’, ‘저런 언어도 들리네’ 이러면서 아이는 그 언어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습득될 수 있을 뿐더러. 그러다보면 문화에도 관심이 있고 또 엄마가 이제 외갓집에 가겠다고 하면 쫓아서 같이 러시아도 다녀올

수 있고 저는 부모가 아까 얘기했듯이,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얼마만큼 이 아이한테 노출을 시키고 아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무궁무진하게 어느 방향이든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2)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  
“부처 간의 협력이 잘되지지는 않아요”

다문화청소년과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외교부·통일부 등 유관 정부부처들 간의 협력이 전제될 때 가장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청소년 정책 및 전략이 도출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바로 ODA 인력으로 투입될 수는 없지만 향후 가능성을 보고 현장 체험의 기회를 증가하고, 더불어 대학에서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의 공조 의견도 개진되었다.

E: 여가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통일부에서도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ODA 사업으로 하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ODA 사업의 중복성, 조정 필요성 등 유관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개발협력사업 교육현장에서 참관하고 교육기회를 주는 것, 봉사활동 기회를 주는 단기이고 일회성이지만 그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요.

F: 다문화학생들만 보더라도 부처 간의 협력이 잘되지지는 않아요. ODA 사업을 다문화사업하고 연결 지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할 수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ODA 사업에 대해

부처 간의 협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DA 사업이 목적이라면 직접 투입하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할 수 있고요.

G: 어떤 직업체험 같은 것,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이지 않을까?... 민간 NGO들 중에서도 개도국과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예를 들면 요즘에 해외봉사단 같은 거 개발도상국으로 보내는 NGO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국가들 중에 연결된 곳들도 있고 하니 ODA 인턴을 KOICA에서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이 인턴의 급여를 NGO들에게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직업체험 개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도가 소박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단계란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H: ODA 사업이 굉장히 많은 학과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술학과들 다 포함되고 있고요. 실제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나 공대, 전산대학들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게이트를 열어주는 하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대학의 역할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봅니다.

## 2. 다문화청소년 집단

### 1) 다문화청소년이 지닌 ODA 핵심역량

(1)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확립: “다문화는 똑똑하다”

다문화청소년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가정교육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위치가 약점이 아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높은 자아존중감이 수립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G: (다문화란) 피가 섞여있는 것?... 전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다문화는 똑똑하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인식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혼혈인 애들은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똑똑한 애들이 태어나면 이제 우리 지구도 발전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K: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온 편이에요. 유치원 때도 친구들이 놀린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너는 엄마가 한국분이시고 아빠가 인도분이어서 두 나라를 더 알 수 있고 엄청 좋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이름도 특이하고 생긴 것도 특이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기억에 잘 남으니까 네가 행동을 하나 잘하면 그게 더 잘 보이고 하나 못하면 더 못해 보이니까 너는 항상 잘 하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저의 강점이 된 것 같아요.

(2) 이중언어 역량: “두 가지 언어를 가져서 부러워하기도 해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역량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으며, 다문화청소년 또한 이러한 이중언어 역량에 대한 자긍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L: 쪽바리네 뭐네 이런 건 있었어도 만나는 분들마다 너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아? 하고 되게 좋은 반응이었고, 또 이제 친구들조차도 이중언어가 된다는 것을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I: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장점은 언어를 사용할 게 많죠. 원래 한국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한국어만 하면 되고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어려운데 다른 가족이 있으면 좀 더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쉽고...

G: 몽골이라는 사람 자체를... 특히 남자애들이 비하할 때도 있고... 근데 두 가지 언어를 가져서 부러워하기도 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3) 이중문화 역량: “어릴 때부터 체득된 것 같아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한국 이외의 부모국가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문화를 체화함으로써 타문화권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며 다문화수용성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A: (국제결혼의 장점은) 외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

F: 중국, 한국 문화하고... 이렇게 다 아는 게 저도 이렇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K: 실제로 저는 다른 문화를 접하는 데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음식이나 어딜 가서 문화를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어릴 때부터 체득된 것 같아요.

## 2) ODA 인재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1) 언어적 역량함양의 결여: “한국어만 써요 집에서...”

부모의 출신국이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문화청소년 자녀가 이중언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 내에서 이러한 이중언어 함양에 대한 지지기반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미래 ODA 인력으로서의 가능성은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

- B: 집에서 (러시아말) 거의 안 해요.... (부모님 들도) 한국말로...
- C: 저희도 한국어만 써요. 집에서는.... (중국어) 초등학교 때는 했는데 중학교에서는 한 번도 배워 본적이 없어서...
- M: 부모님께서 (집에서) 일어보다도 어설픈 한국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언어를 잘 못 배우는 상황까지 좀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설픈 한국어라도 가르쳐야 애가 밖에 나가서 놀림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 (2) 적합한 프로그램의 결여: “정말 이상한 사회공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구요”

실제 다문화청소년의 요구도와 상황을 고려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기업·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회성의 가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효과 또한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 K: 고등학교 차원에서 베트남 해외 봉사를 간 적 있는데, 솔직히 명목이고 봉사보다는 관광을 했어요. 그것도 패키지 관광. 그래서 되게 기분도 안 좋았고 별로였어요.
- L: 서울시 측에서 한 다문화 캠프가 있어서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그날 공감도 많이 하고 중학교 때쯤이었던 거 같아요. 나는 다문화라서 이런 일 당했어, 저런 일 있었어...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끝이에요. 그날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
- L: 일단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개 참여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게 S사에서 한 거였어요. 그거는 1회짜리 캠프였는데, 2박 3일 동안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거 보여주는 그런 캠프였어요. 그건 저

는 제일(강조) 나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때 무슨 엄청 좋은 호텔가서 배우고 수영하면서 놀게 하고 놀아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왜 해주는 건데요? 그거를? 다문화 애들이 불쌍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물론 가서 잘 놀고 좋기는 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정말, 정말(강조) 이상한 사회공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구요.

### 3) ODA 인재 성장을 촉진시키는 강화방안

- (1) ODA 인재로서의 사명감 고취: “제가 성공을 하고 유명해지는 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한국 및 한국 이외의 부모님 출신국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성장해온 경험을 토대로 다문화 후속세대를 책임지고자 하는 사명감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다문화자녀의 성공적인 역할모델(role model)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올바른 진로 지도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K: 저는 그런 사명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런 인터뷰가 있다든지 사실은 조금 싫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다문화가정인데 이렇게 잘 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꼬박꼬박 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저를 보고 꿈을 갖게 된다던지 아니면 그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저를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인식이 조금 개선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는 좋은 선례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장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어릴 때는 그게 힘들죠. 그래도 진짜 장점인데 그걸 잘 모르고 숨기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은 거 같아서.

- L: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돼서 다문화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일단 그 친구들한테도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유명해 진다면 그 사회에 끼치는 파급력도 되게 크잖아요....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표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 친구들에게 영감을 줘야하지 않을까.... 제가 성공을 하고 유명해지는 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 (2)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다문화끼리만 모이면 뭔가 어색할 것 같아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유효한 프로그램의 경험은 봉사에 대한 인식전환 같은 긍정적 산출물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수혜자 모집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청소년들 각각의 배경과 요구도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혹은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L: 저는 캄보디아 봉사를 일주일 정도 다녀온 적 있었는데, 그때 관광 하나도 안하고 홈스테이하고 정말 봉사를 위한 봉사를 하고 왔어요.... 봉사를 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 3세계에 대한 편견도 있고 동정이었거든요. 그때 가서 겪은 것은 동정보다는 소통하고 공감하는데 봉사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크게 뒤집혔던 적이 있었고... S대에서 청소년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다문화나 탈북자 새터민 친구들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친구들이 좀 더 사회 문제에 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섞여서 뽑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문화를 하나로 묶어서 생기는 문제가 경제적 계층이 너무 다양하고 상황이 너무 다른 데, 그걸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 자체가 되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K: 제 생각에는 엄청 큰 게 일단 엄마가 외국인이나 아빠가 외국인이나 여기서도 크게 갈리고, 국가에 따라서도 갈리고, 그리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도 갈리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도 갈리고.... 각자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되게 힘든 일이겠죠. 근데 그래도 제대로 유효한 그런 도움이 되려면 세분화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 G: 저는 음... 다문화끼리만 모이면 뭔가 어색할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좀 들어와야지 그 애들이랑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딱 한국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거 토론하고 우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한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서로 토론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미래 ODA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과 다문화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

문가들의 시각을 분석한 결과, ODA 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언어적·문화적·전문적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를 함양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미비한 현실이므로, 글로벌 인재 양성의 틀 안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세계시민교육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생득적으로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의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는 발달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이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부모의 인식전환과 담당 부처 간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미래 ODA 인력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탐색한 결과, 단순히 가족환경이 다문화라는 것은 절대적인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어린 시기부터 다문화가정 환경에 대하여 우호적 가정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과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의 역량을 지니고 있었으며 나아가 성공의 의지와 다음 다문화 세대에 대한 사명감도 충실하게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들이 미래 ODA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유효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ODA 인재양성에 대한 주요한 함의와 시사점을 몇 가지 논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강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박미숙·이미정, 2014; 양미진 외, 2012; 윤경식·장일식, 2015)은 이중문화의 갈등 속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갈등을 경험하는 등 부정적 측면을 대부분 보고해왔다. 따라

서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과 사회 이탈로 연결되지 않도록 성공적 적응에 단초가 되는 자존감 확립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 중 다문화청소년인 G와 K 및 L은 본인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역할모델로서의 사명감도 확고히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다문화가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준 부모님의 조기 교육 덕분임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이 더 이상 결핍된 취약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 요구하는 역량 강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한국 이외의 부모나라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교육 부재·방문기회 부족 등이 자존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인 양육이 요구된다(김승희, 2011).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가치·흥미·기술의 개발에 영향을 주고 동기부여 및 경력목표 달성 등 제반 노력에 중요한 역할(Marshall et al., 2011)을 하는 만큼, 다문화청소년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지닌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한국사회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부모역할 수행과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남부현·김옥남, 2012). 일찍이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이주가정 및 그 자녀를 지원하는 학교 가정 중개 프로젝트(School Home Liaison Project)를 실시해 오고 있다(Arnot & Pinson, 2005).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학교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유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딜레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 안목을 키움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실천능력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남부현·정천석, 2010).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지닌 생득적 혜택 중의 하나는 이중문화와 이중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 중 L, A 등의 다문화청소년도 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문화적 충돌 없이 세계 문화를 받아들이며 사회적 시각의 확대 및 편견의 극복에서도 우수하며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도 덜하여 긍정적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김삼화, 2011; 정지윤·문성호, 2011)들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이러한 환경의 제공은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곧 미래 진로와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도 자녀들이 이중언어 역량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남부현·김옥남, 2012).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혼돈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한국 이외 부모의 모국어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성과 활용성이 긴급하지 않다면 이러한 배경은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장점과 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능력이 생활 속의 불편함으로 인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김민경, 2015). 본 연구참여자 중 다문화청소년 M도 이로 인한 고충을 전한 바 있다. 이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문화와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에 갈등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박미숙·이미정, 2014)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환경은 이득과 어려움이 공존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태생적 자원과 경험을 극대화시켜 값진 역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들이 미래 차세대 ODA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식·대상·내용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실질적 문제 집단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역량의 가능성을 높게 지닌 가치 있는 집단이라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대상 선발 시, 다문화청소년만이 아닌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져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전문가 집단과 다문화청소년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토로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청소년만을 분리했을 때 오히려 차별과 낙인의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통합교육의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박미숙·이미정, 2014; 박은민, 2013; 양계민·조혜영·이수정, 2009)들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실제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한국어교육·학교학습지원·사회문화적응 등 한국사회 동화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유진아·김혜정, 2009; 이정우, 2012)이며, 다문화청소년이 지닌 이중언어 역량강화, 이중문화 정체감 형성 및 이를 기저로 한 취업 및 진로지도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박은민, 2013).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개개인의 성향과 흥미·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화된 강점을 활용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진로와의 연계선 상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ODA 분야와의 접목은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은 구체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틀 안에서 접목되기를 제안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민윤리, 인권, 환경 등의 내용을 다루는 만큼 세계인류로 확장된 포괄적인 견지에서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지구촌 공동체의 주체적 변화를 유도하는 세계시민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사회통합 및 상호공존을 위하여 평등과 공동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적 접근(안권순, 2009)이 될 수 있으며, 아시아적 복합정체



성을 지닌 세계시민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강순원, 2010). 그러나 이러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론칭된다 해도 다문화청소년들은 또 다른 장벽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개설된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이 진입하기에는 정보나 준비의 부족 등으로 교육기회조차 소외당하는 부분들에 당면해야 한다. 본 연구참여자 중 전문가 집단의 A, D, E는 ODA 관련 프로그램도 거의 없지만 관련 국제화 프로그램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대조항 등을 확보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구된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이 차세대 ODA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사회, 국가적 차원의 특성화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국민들 스스로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고 ODA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적 홍보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ODA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등 커리큘럼의 지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은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멘토 등 풍부한 인력풀(pool)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ODA 인재양성과 관련한 매뉴얼 및 ODA 전문가 자격제 운영, 사업 실무교육 심화, 전담교사 양성 등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정부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기능을 통합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총괄하는 통합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유창준·김건태·임상호, 2012). 한국 사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점차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을 포용하고 같은 위치에서 교류와 협력, 공존이 가능한 시

너지 창출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 국가위상 도약을 위하여 이러한 성숙한 다문화 관점의 확보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갱신과 진전을 위해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홍기원, 2007). 그럴 때 경쟁력 있는 글로벌 자원을 갖추고도 학교 및 사회의 주도적 위치에 머물지 못하고 방황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차세대 리더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양미진 외, 2012)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미래 ODA 인재라는 비전제시는 바람직한 방향제시와 충분한 열정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헤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서 미래 ODA 인재 가능성을 각각 전문가 집단과 다문화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입체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성별, 부모의 국적, 출생지, 입국시기, 한국 외 외국 부모국과의 유대감 등 다양한 다문화청소년의 배경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연계선 상에서 보다 심도 깊은 탐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첫째, 다문화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방향을 설계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선상에서 다룸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 둘째, 다문화청소년을 문제를 지닌 취약계층이 아닌 글로벌 역량을 지닌 인적자원의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 셋째, 한국사회의 동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입장에서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ODA 분야라는 새로운 진로모색의 블루오션(blue ocean)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순원(2010).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의 평생 교육적 전망. 평생교육학연구, 16(2), 69-91.
- 2) 국무조정실(2016).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etc/Sitemap.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etc/Sitemap.jsp)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5) 권율(2011). ODA 중기재정 운용방향.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ODA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3-43.
- 6) 김미옥(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59(4), 163-189.
- 7) 김민경(201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2), 121-134.
- 8) 김삼화(201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자원과 문화 차이 지각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상담, 1(2), 23-40.
- 9) 김승희(2011).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23(3), 25-61.
- 10) 김철희(2011).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1) 남부현 · 김옥남(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수도권의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13-142.
- 12) 남부현 · 정천석(2010).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여성결혼이주자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13)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 14) 박미숙 · 이미정(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3), 149-174.
- 15) 박은민(2013).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경험 지각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3), 1-21.
- 16) 박형수 · 유진호 · 박부연(2013).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8(5), 771-777.
- 17) 안권순(2009). 다문화청소년의 건전 육성 방안. 청소년학연구, 16(7), 99-126.
- 18) 양계민 · 조혜영 · 이수정(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 양미진 · 이동훈 · 고흥월 · 김영하 · 남현주(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20) 에너지경제(2016.3.9).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지원한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05684>
- 2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 22)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23) 유진이 · 김혜정(2009).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7(32), 17-32.
- 24) 유창준 · 김건태 · 임상호(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5), 19-26.
- 25) 윤경식 · 장일식(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

- 논총, 10(1), 147-178.
- 26) 이정우(2012). 청소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293-314.
- 27) 장현식(2008). ODA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2008년 인재정책 협력망 2차 정례토론회 발표자료.
- 28) 전경숙·정기선·이지혜(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서울: 경기도교육청.
- 29) 정지윤·문성호(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 30) 정하성·유진이·이장현(2007). 다문화청소년 이해론. 서울: 양서원.
- 31) 통계청(2015).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32) 홍기원(2007).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자료집.
- 33) Arnot, M. & Pinson, H.(2005) The education of Asylum-Seeker and refugee children: A study of LEA and school values, Policies and Practices. Cambridge: Faculty of Educ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 34)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35) Holstein, J. A., & Gubrium, J. F. (1995). The active interview. Thousand Oaks, CA: Sage.
- 36) KBS 뉴스(2014.10.27). 다문화 청소년 1%, 인  
재로 키워야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id=2955394>
- 37) Kleiber, P. B.(2004). Focus Groups: More than a method of qualitative inquiry. In deMarras K. & Lapan, S. D.(Eds.), Foundations for research: methods of inquiry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pp. 87-10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38) Krueger, R. A.(1998).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Thousand Oaks, CA: Sage.
- 39) KTV국민방송(2015.8.12). 광복 70년...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09440](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09440)
- 40) Lincoln, Y. S. & Guba, E. G.(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41) Marshall, S. K., Young, R. A., Stevens, A., Spence, W., Deyell, S., Easterbrook, A. & Brokenleg, M. (2011).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in urban-residing aboriginal families in Canada.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6), 539-558.
- 42) Padgett, D. K.(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43) Golbal Compact Network(2016). A GLOBAL COMPAC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globalcompact.kr/wp/>

- 투 고 일 : 2016년 5월 31일
- 심 사 일 : 2016년 7월 3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10일